

도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한다

의무고용률 3.8% 목표...미화원·늘봄실무사 등 직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조원 등 중증장애인 채용도 신설

전남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 중증장애인 채용을 늘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달성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 근로자 고

용 확대로 고용부담금 절감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했으며 미화원, 당직전담원, 늘봄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을 확대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조원' 직종도 신설했다.
해당 직종은 특수교육 관련 행정업무 보조하며,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기간제 교원과 공무원 결원 대체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취업 장벽을 낮추고 근로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갈 계획이다.
채용 계획 및 지원 방법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며 "장애인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최우선'
전국 첫 산불진화대 처우 개선

전남도는 24일 "산림청의 2024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방지 역량과 예방·대응 이행에 대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산불 예방·대응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현장 위험성이 높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1일 1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고 산불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해 산불방지 교육 훈련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 산림 안전지 영농부산물 75t을 사전에 수거·파쇄했다. 불법 소각 대응반 2천501명을 구성, 취약 시간대와 휴일 기동 단속을 통해 3천588건의 계도 활동과 과태료 1천100만원(67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409개 마을이 참여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약 참여 노력으로 7개 마을에 현판을 배부했다. 이 중 12개 마을은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도민들도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김장 나눔은 즐거워요

지난 22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돌봄 세대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봉사활동에 참여한 서강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버무린 김치를 맛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퍼주기 외교’ 참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비판...일본 간 유가족 등 자체 추도식 예정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4일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예견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추도식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자리인데, 일본 정부가 전범 합사 전력이 있는 우익 성향 인사를 대표로 참석시켜 한국을 조롱했다"며 "추모 대상조차 모호한 이번 행사는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를 자축하기 위한 정치적 자리일 뿐이다"고 지

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나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에서 이날 오후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 대응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했던 '사도광산 전시관'과 '추도식'이 모두 빈 껍데기였음이 드러났다"며 "전시관에는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없고, 추도식도 정체불명의 행사로 유족들을 모욕하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에 '피해자 중심의 대일 외교 정책 수립' 촉구와 함께 "이번 굴욕적 사태는 한국 외교가 국제적 호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외교적 수치와 굴욕은 윤석열 정부의 '퍼주기 외교', '막장 외교'의 치참한 결과"고 꼬집었다.
한편 추도식 참석을 위해 전날 일본에 도착한 정부 관계자들과 유가족 9명은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안재영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해질 17:22
달돋이 01:31 달지 14:09

인cheon 서울 0/13 강릉 5/17
5/15 4/15 2/17 5/17
전주 5/18 광주 3/16
8/17 6/17
흑산도 8/17 제주 10/16
8/17 13/18

도도 6/17
부산 9/18

광주	호러저비	6/17
목포	호러저비	8/17
여수	구름조금	10/16
나주	호러저비	4/17
완도	호러저비	10/19
구례	구름조금	3/17
강진	호러저비	6/18
해남	호러저비	7/18
장성	호러저비	3/17
보성	호러저비	5/15
순천	구름조금	5/17
영광	호러저비	4/17
진도	호러저비	8/18
흑산도	호러저비	8/17
고흥	호러저비	7/18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40

빨래 30

세차 20

운동 40

우산 챙기세요 실내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1.0-2.0
	면바다(북)	1.0-2.0 1.5-3.5
	면바다(남)	1.0-2.5 1.5-3.5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2.0
	면바다(동)	1.0-2.0 1.5-3.5
	면바다(서)	1.0-2.5 2.0-3.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9:44	03:00
	22:07	15:17
여수	05:23	10:59
	17:16	23:46
녹동	06:07	00:11
	18:04	11:57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1월 26일(화)	☁ (11/12)	☁ (9/10)	☀ (11/15)	☁ (11/15)	☁ (13/15)
27일(수)	☁ (6/8)	☁ (1/5)	☁ (4/10)	☁ (4/11)	☁ (10/13)
28일(목)	☁ (2/9)	☀ (-1/3)	☀ (1/7)	☀ (0/9)	☁ (8/12)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86% 이상 '만족'

오전 수업 집중력 향상 등 효과...“향후 예산 현실화 추진”

전남교육청이 시행 중인 '아침 간편식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침 간편식 사업은 초·중·고 107개교(학생 약 8천500명)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학생의 86%, 학부모의 88%, 교직원의 8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 89%와 교직원 88.4%는 '아침 간편식 사업이 학생들의 오전 수업 집중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이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직원의 만족도는 2023년에 비해 22% 높아진 반면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3.8%p 낮아졌다. 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높아진 기대와 달리 학생 1인당 하루 지원 예산이 3천원으로 제한되고 물가 상승으로 메뉴 제공에 한계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향후 학생 지원 예산 현실화를 추진하고 아침 간편식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무료로 드립니다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

CMYK